

# 뉴욕나눔의집 돕기 나눔디너콘서트 ‘사랑나눔 꽃’ 활짝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이 주최한 ‘나눔 디너 콘서트’가 ‘15일’ 오후 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홀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의 사회로, 2부 콘서트는 KCBN 편성국장 오영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 극동포럼 회장 박성양 장로의 기도, 찬송, 이사장 최재복 장로의 성경 봉독, 방지가 목사의 설교, 뉴욕나눔의집 소개 영상 상영과 박성원 목사의 사역 소개, 나눔합창단의 합창 “내 영혼이 은총입어”,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와 뉴저지교협 회장 장동신 목사 등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방지가 목사는 누가복음 16장 19-25절을 본문으로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방 목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나는 긍휼을 베풀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며 도움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설교했다.

콘서트는 경배와 찬양, NYMA 앙상블, 뉴욕사모합창단, CBSN 무용단, 제시유, 제시유와 앙상블, 이중창, 뉴욕여성밀알선교합창단,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연주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자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만찬이 진행되었다.

뉴욕나눔의집을 후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718-683-8884(박성원 목사)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



뉴욕나눔의집이 주최한 나눔 디너 콘서트가 15일 오후 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홀에서 열렸다. 맨 뒷줄 맨 오른쪽이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